

## 치 사

생명의 기운이 가장 푸르게 생동하는 시간입니다. 짙어가는 신록은 대지를 장엄하고, 마음에서도 맑은 기운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여 밝게 등을 밝히고, 모두 함께 행복을 이루어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을 밝히는 것은 진실한 나를 찾아가는 일이며, 서로의 삶을 밝혀주겠는 소중한 마음 가짐입니다. 소중한 인연 공덕이 저마다의 마음에 스며들어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희망을 성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성으로 밝힌 빛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곁에 이웃이 함께 있다는 느끼며,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여유를 나누는 것은 더 없이 공덕을 쌓는 일이고, 이에 따르는 덕행 또한 지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관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가르침을 스스로 알아가고 함께 실천하는 매우 소중한 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음악으로 법회를 장엄했다는 경전의 여러 말씀들 처럼, 오늘 뜻 깊은 봉축 점등과 함께 음악의 친밀함으로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들게 하고, 시민들의 삶에 희망과 웃음이 친절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자리에 소중한 불을 밝게 비추고,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진으로 향기로운 세상에 성큼 다가서고 사회와 이웃에 항상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